

해남 원도심, 초콜릿 달달함으로 활기 되찾는다

5곳 로컬 판매장 운영…전국 최초 ‘초콜릿거리’ 조성 달꼴초코·고구마쫀득쿠키 입소문…관광명소 자리매김

해남 원도심이 초콜릿을 테마로 한 특화 거리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해남을 원도심을 대상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초콜릿 거리 조성으로 해남을 상권의 중심지인 읍내리·성내리 일원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수제 초콜릿 체험장과 판매장 등 거점 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2024~2025년에 걸쳐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초콜릿 아카데미가 운영된 가운데 교육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창업·

매장 복합화가 이뤄지면서 원도심 일원에는 현재 총 5곳의 로컬 수제 초콜릿 판매 매장이 운영을 시작했다.

특히 해남 초콜릿거리의 제품들은 고구마, 밤호박 등 해남 특산물과 연계해 지역적인 특성을 더하고, 고급 원재료를 이용한 수제 초콜릿으로 해남만의 차별화된 초콜릿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수개월간의 전문가 교육을 통해 매장마다 대표 초콜릿 제품을 개발해 제품화로 지역 고유의 로컬브랜드 개발은 물론 원도심 관광 활성화까지 이끌어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초콜릿거리 거점공간으로 조성된 ‘달꼴 초코’는 다양한 로컬 수제초콜릿 판매와 함께 체험장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팡гла호박당’은 해남 특산물인 밤호박을 활용한 초콜릿 디저트를 비롯해 다채로운 초콜릿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12월 영업을 시작한 ‘공심당’은 고급 초코파우더와 생크림을 이용한 초코파이와 고구마쫀득쿠키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해남고구마빵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파닝시에’에서는 복합매장화 전략을 통해 파베초콜릿 등 다양한 수제초콜릿 제품을 함께 판매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또 매일시장 2층의 ‘오늘하루’ 매장에서

도 초코 뷔런느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면서 전통시장과 초콜릿 거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대형 리본 디자인 조형물과 포토존 조성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땅끝 달달야행 등 연차별 상권활성화 사업을 역점 추진해 왔다. 원도심 상권은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라는 하루길의 콘셉트를 갖고, 이번 초콜릿거리 조성사업을 계기로 초콜릿과 선물, 사랑의 이미지를 거리 전면에 녹여냈다.

군 관계자는 “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이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초콜릿거리가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h239@gwangnam.co.kr



강진, 어르신 이동권 보장 내달 ‘치매돌봄택시’ 운영

강진군보건소(강진군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치매환자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인택시사업자 5명과 ‘치매돌봄택시’ 송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돌봄택시는 치매 환자 치매안심센터의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동이 불편한 주민이 치매정밀검진을 받고자 할 때, 자택에서 센터까지 무료 택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2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운영 체계를 점검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과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했다. 이를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전문적인 송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상자들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증상 악화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



목포시는 최근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항만권역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항만권 일원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 12건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목포, 항만권역 해상풍력플랫폼 고도화

신항 등 12개 사업 점검·TF 구성…상시 관리체계 전환

목포시가 신항만 일원,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고도화 등 항만권역 주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항만권역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열고 신항·남항·북항·삽진항 등을 아우르는 12건의 핵심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사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단계별 점검과 보완 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시는 신항 신규 산업단지 조성, 목포 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해상 풍력 플랫폼센터 고도화, 해양경찰정비 창 건립, 남항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구

축 및 남항 재개발, 용당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문화예술항구 디자인 보행교 조성, 북항선착장 대합실 조성, 삽진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 등 주요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끝으로 권역별 현안 점검을 마무리하고, 권역별 TF를 구성·운영해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목포=이춘기 기자 leek2123@

완도, 70억 투입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내년 준공 예정…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완도군은 올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들이 제약 없이 주도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장애인형) 체육시설로,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반다비’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마스코트에서 이름을 따왔다.

군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완도군 체육공원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660㎡ 규모로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센터 내부에는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개인 보관함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오는 4월 착공 예정이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진도 소포리 길쌈노래’, 전남 무형유산 지정

진도군은 올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회는 현재 28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존회장인 한봉덕씨는 길쌈노래를 비롯해 지역의 민속예술을 전승해 온 고한남례씨의 동생으로 지역 민속예술 전승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유단체 인정은 진도 지역의 여성 생활 문화에 대한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다”며 “앞으로 전승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Carrier

**차원이 다른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
고효율 히트펌프도 결국 캐리어**

120년 노하우가 빛어낸 지속 가능한 냉난방 혁신
2025 NEW 에코 히트펌프 솔루션 EHS

※ 본 제품은 오토캐리어의 기술력으로 연구개발되어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arrier 에너지솔루션
동행 지역상공인
300% 이상
압도적 에너지 효율
(당사 정격 시험 조건)
최대 58°C
고온 난방,
혹한도 거뜬하게
4 사이클
독립 운전,
멈춤 없는 냉난방
탄소까지 줄이는
고효율의 완성

온라인 견적 문의
카탈로그 다운로드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
캐리어몰 www.cartermall.co.kr | 홈페이지 www.carrier.co.kr
구입 문의 1588-8855 | 서비스 문의 1588-8866 | 전국 510개 서비스 네트워크